

새 단장한 미술관서 저장의 작품 만난다



‘From Line’(1980)

지난 2008년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문화가 숨쉬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2층 규모 건물은 6개의 전시실을 갖춰 작가들에게도 다양한 공간 구성을 시도할 수 있는 인기 장소였다.

10여년 간 지역민과 함께 했던 상록전시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3일 하정웅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77)씨는 지난 1993년부터 20여년 간 6차례에 걸쳐 작품 2523점을 기증하며 지난 2001년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에 위촉됐다. 하정웅 기증작은 이우환, 전화환, 박인식, 박덕준 등 재일교포작가 작품과 마리 로랑생, 샤갈, 달리, 앤디 워홀 등으로 구성돼 시립미술관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소장품을 갖추게 된다.



1층 1전시실 모습.



하정웅미술관 전경.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개관 기념 이우환전

하씨 시립미술관에 작품 2523점 기증

상록전시관 리모델링 3일 미술관 개관

이우환 작품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회화 37점

사진·편지·리플렛 등 6월 25일까지 전시



‘East Winds’(1984)



1990년 하정웅 명예관장(왼쪽)과 이우환 작가.

며 작업했던 ‘From Point’, ‘From Line’ 시리즈에서 벗어나 마음 여유를 가지고 그린 작품들이다.

2전시실에서는 작품을 비롯해 하 명예관장, 이 작가가 함께 찍은 사진, 편지, 리플렛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하 명예관장은 당시 권위 있는 일본 미술잡지 ‘미즈에’를 통해 이 작가를 알게 되고 재고(500권)를 전량 구입했다. 마침 잡지가 필요했던 이 작가가 연락하며 인연이 시작된다. 이후 하 명예관장이 1984년 유럽 전시경비를 지원하자 이 작가는 보답으로 작품을 선물한다. 전시실에는 잡지 ‘미즈노’와 당시 선물 받았던 ‘From Line’(1980)을 함께 만날 수 있다.

또한 2층(4·5전시실)은 이 작가가 중시여겼던 판화 작품, 최근작 ‘Dialogue’(2012)로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한편에는 하정웅 아카이브실을 설치해 하 명예관장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장식품도 배치했다. 일반에 공개한 명예관장실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설치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계행사로 전시기간 매주 토요일(오후 2시)마다 작품설명회를 열고 청소년 교육, 추상화 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하정웅미술관은 콜렉션 전시뿐 아니라 지역작가·단체 전시도 꾸준히 열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는 인문학 강좌도 운영한다. 문의 062-613-53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날마다 행복한 나무...이종숙 개인전

순천만

도솔갤러리

31일까지



▶ ‘Happyday’

나무를 소재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종숙 작가가 순천만 도솔갤러리에서 1~31일 초대 개인전 ‘Happyday-tree’를 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무를 반추상 기법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Happyday-Tree’ 시리즈는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로수 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보라, 주황, 청록 등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따뜻한 분위기로 캔버스를 채웠다.

특히 기둥과 가지, 이파리를 다양한 구도로 그리며 동적인 느낌을 가미했다. 또한 비슷한 색채가 엮이는 꽃 작품도 출품한다. ‘Happyday2017-Rose06Y’, ‘Happyday2017-Rose03

R’ 등을 통해 향기 가득한 봄소식을 전한다.

이 작가는 “우주 안에 또다른 우주가 있듯 숲 속의 숲을 작품에 담아 상상 속 이야기를 구현했다”며 “낮설지 않은 친근한 풍경을 소재로 행복한 느낌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남동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개인전 6회, 다수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목우회, 신작전, 리플렛, 삼목회, 한문회, 목포·전남여성작가회, 가톨릭미술, 환경미술, 나그모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751-0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여량상가교서’ 등 6건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28일 ‘신여량상가교서’〈사진〉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신여량상가교서’(申汝樑賞家敎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권율과 함께 싸운 신여량에게 전공에 대한 포상으로 정삼품에서 중2품으로 승진시키면서 내린 부임 명령서다. ‘신여량필부유서’는 신여량에게 발급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증빙서류로,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

사명령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희귀 자료다.

그밖에 조선 후기 영의정 최석정의 모습에 그린 ‘최석정 초상 및 함’, 원나라 승려 유적이 쓴 능엄경 주석서를 조선 세조 때 번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화엄경을 번역한 ‘조초종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정주 비종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희기자 kimyh@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 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 & 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8)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